

광양시 청정 수소 관광버스 운행 개시

보조금 71억원 투입 8대 보급
저상버스 3억 9000만원 지원
8월부터 수소 시내버스도 도입



광양시에서 운행을 시작한 수소관광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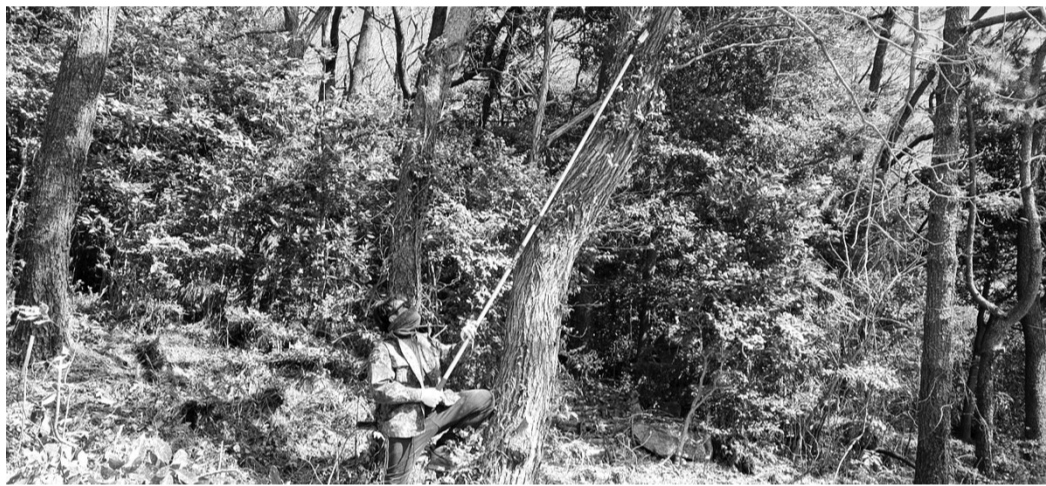
‘달리는 공기정정기’로 알려진 수소 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간다. 광양시에 따르면 첫 수소 버스로 ‘관광버스’가 출고됐다. 올해 안에 관광버스 8대를 추가 보급하고 오는 8월부터는 수소 시내버스 2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 승용차에 집중했던 광양시 수소차 보급 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수소 버스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국비 58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억원 등 71억원을 확보해 수소 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1대당 수소 고상 버스 3억 7000만원, 수소 저상 버스 3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구입 보조금을 제외하고 민간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수소 고상 버스 2억원, 수소 저상버스 1억 3000만원으로 일반버스 구입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소 버스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버스에 비해 차량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으며, 배기가스나 탄소 배출이 없어 ‘달리는 공기정정기’로 불

릴 만큼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다. 수소 버스 1대가 중형 경유차 40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소 버스는 전기버스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충전 시간은 전기버스가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에 비해 수소 버스는 10-20분으로 짧고, 한번 충전으

로 운행이 가능한 거리도 전가차는 400km 미만, 수소는 500km 이상으로 길다. 신오의 광양시 신산업과장은 “수소 버스 출고를 시작으로 수소차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가 지원하는 수소 승용차 구입 보조금 혜택과 함께 수소차 구입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미래교육재단 대학생 200만원 지급 초 20·중 30·고 50만원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장학사업심의 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성적우수 대학생에 최고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24년 장학·격려사업’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재단은 올 상반기 성적 우수 대학생을 전년보다 40명 증원한 120명을 선발해 1인당 최고 200만 원의 실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4월 초 곡성군미래교육재단 누리집에 공고해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성적 우수 고등학생은 30명 선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5월 중 각급 학교에 안내해 장학생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성장지원 장학생으로 초등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20만 원을, 중학생 30명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예체능과 기능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학교 체육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



여수시 관계자가 장군도에서 민물가마우지 서식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장군도 민물가마우지 서식지 제거 작업

숲 백화 현상 피해 방지

겨울 철새 민물가마우지 때의 배설물로 인한 장군도 숲 백화현상 해를 위해서 서식지 제거 작업이 펼쳐진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겨울 중앙동 내 삼 장군도는 겨울 철새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숲 백화현상이 나타나 공원경관이 크게 저해됐다. 이에 따라시는 고압수를 통한 수목 세척, 드론 활용 기피제 살포, 경보기 설치 등 피해 방지에 나섰으나 특별한 성과 없이 조류 개체수 조절에 난항을 겪었다. 현재는 이곳에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는 확연히 줄었으나 여전히 일부 가마우지가 서식하면서 백화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가 한국 조류학회, 전남 야생동물연구센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가마우지들은 산란이 성공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생태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수시는 가마우지 산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물가마우지의 동지 제거, 가지치기, 뺨뺨하게 자란 작은 나무들을 제거하는 등 서식지를 제거하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숲 가꾸기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엔 민물가마우지가 돌아오더라도 서식지가 없어 가마우지가 번식하지 못할 것”이라며 “배설물 피해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가마우지가 퇴치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운영

4월 한달간 밤 9시까지 진행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에 맞춰 4월 한달간 국가정원 야간 프리미엄 투어 프로그램 ‘나이트 가든투어’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일 최대 40명까지 참여 가능하고 오후 6시 20분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며, 시크릿 어드벤처, 스페이스 허브, 수상 퍼레이드 등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야간투어에는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리뉴얼된 시설 및 각종 테마 정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의 화려한 야간경관을 한층 더 깊이 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투어는 도보코스, 승선코스 2가지 방식으로 구

성되며, 도보코스는 시크릿 어드벤처, 스페이스 허브 등을 보다 세밀히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승선코스는 시크릿 어드벤처 관람 후 수상퍼레이드 선박에 승선하여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한편 이번 투어 예약은 별도 예약시스템(www.nightgardentour.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용요금은 성인기준 1인 도보코스 13000원, 승선코스 18000원이다. 투어 참여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은 예약시스템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순천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야간투어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계절별, 테마별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산불 예방 캠페인.

고흥군 청명·한식 산불예방 총력 대응

헬기·감시원 등 가용자원 총동원

고흥군이 청명과 한식을 맞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군은 16개 읍·면과 합동으로 주요 등산로와 묘지, 산림 연결지 등 산불 취약지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예방 마을 방송과 차량 가두 방송도 할 계획이다. 올해 산불 방지대책은 지난 2월 1일부터 조기

수입해 군, 읍·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산불 비상 근무 체계에 들어갔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처와 조기 진화를 위해 인차 헬기 1대, 전문 진화인력 및 감시원 94명, 진화 장비 1천여 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성묘나 산행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산림 주변에서 각종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군장학재단 341명에 장학금 3억여원 지급

15일까지 장학생 모집

보성군은 (재)보성군장학재단이 오는 15일까지 올해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이다.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 80명, 미래인재 66명, 희

망나래 16명, 보급자리 57명, 한울타리 39명 등 10개 분야다. 모두 341명에게 3억35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은 6월 중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인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